



심표가 있는 영성: 의무에서 관계로

CBMC 여름 방학을 맞이하며

숨이 턱 막히는 세 개의 부사



감정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항상?



바쁜 업무 중에 어떻게 쉬지 않고?



실패하고 억울할 때도 모든 일에?

이 명제들은 율법이나 KPI로 다가올 때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돌덩이'가 됩니다.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단 하나의 비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쁨, 기도, 감사는 '노력'해서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결과입니다.

김해의 한 카페에서 목격한 뜻밖의 진리



노회 회의를 마치고 목사님들과
들른 뷰가 좋은 카페.



뒷자리에 앉은 한 여성분의
전화 통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완전히 몰입하여,
주변 목사님들의 대화가 무색해질 만큼
즐거운 통화였습니다.

케미(Chemi)가 맞으면 대화의 소재는 끝이 없습니다



의무감이었다면 5분도 길었을 통화가, 끝없는 기쁨의 수다로 이어졌습니다.

관계의 깊이는 시간의 감각을 지워버립니다



지구 반대편 칠레행
비행기 (24시간)
+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 순식간에 지나감

가까운 일본행 비행기
(2시간)
+
불편한 원수와 함께



= 24시간처럼 느껴짐

2시간 30분의 긴 통화 시간은 그녀에게 불과 10분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문제입니다.



**춘자야, 자세한 건
내일 만나서 다시 얘기하자!**

2시간 반의 통화를 끝내는 마지막 인사.
대화가 진정으로 기뻐기 때문에 내일 또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라'의 진짜 의미입니다.

기쁨은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기쁨 ✖

상황이 좋아야 기뻐함

관계적인 기쁨 ✔

주님과의 케미(Chemi)가 맞을 때
상황을 뛰어넘어 기뻐함

패러다임의 전환: 의무 모드 vs. 관계 모드



구분	율법/의무	관계/은혜
느낌	무거운 돌덩이, 숨막힘	가벼움, 즐거운 수다
시간	시계를 보며 20분도 버거움	2시간이 10분처럼 지나감
조건	완벽한 상황에서만 가능	고난 중에도 가능

신앙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행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점검할 때입니다.

궁극의 모델: 성부 하나님과 완벽한 케미를 누리신 예수님



예수님은 무소불위의 신으로서가 아니라,
배고픔과 눈물을 아는 철저한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사셨습니다.

승리의 비결: 능력이나 의지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와의 돈독한 '함께함(관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양식으로 삼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십자가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축사

나사로의 무덤 앞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도
베다니에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심.

오병이어



유대인을 위한 12바구니의 기적.
보잘것없는 도시락 앞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감사)하심.

칠병이어



이방인을 위한 7광주리의 기적.
나눌 때마다 감사가 기적을 낳음.



순종이 낳은 풍성한 기쁨의 열매



유대인을 위한 기적

오병이어

남자만 5천 명 먹음



12 바구니 남음
(유대인의 완전수)

이방인을 위한 기적

칠병이어

4천 명



7 광주리 남음
(이방인의 완전수)

아버지와의 완벽한 관계에서 흘러나온 기쁨과 감사는 모두를 배불리 먹이는 축제로 이어집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간과 장소의 덫에서 벗어나기

시간의 덫

아침 일찍 기도합니다
자기 전에 기도합니다

장소의 덫

집에서는 안 되고
교회에 와야
기도가 됩니다



성경의 진리

성경은 기도를
물리적 시공간에
가두지 않습니다.
단절 없는 영적 대화가
핵심입니다.

두 번째 롤모델: 폭풍 속의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의 폭풍우 (Storm Context)

- ⚡ 상황: 로마 황제 숭배와 그리스도 로마 신화가 만연한 이방 지역.
- ⚡ 환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문에서 파문당하고, 비즈니스가 쪼딱 망하며, 내일 순교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핍박의 연속.

이들은 고난과 핍박이라는 거대한 먹구름 속에서도 기뻐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생생하게 감사하는 승리의 증거를 남겼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한 증명: 데살로니가 교회

가혹한 현실

로마 황제 숭배와 다신교 사회 속,
가문에서 파문당하고 내일 순교해도
이상하지 않은 핍박.

아름다운 반응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철저히 감사하는 삶을 살아냄.



관점의 전환: 의무의 안경을 벗고 관계의 돋보기로

관계의 일상으로 변습니다.

구분	율법적 의무 (행위)	친밀한 관계 (사랑)
기도	 시간과 장소에 얽매임 (새벽, 교회) 	사랑하는 사람과의 끝없는 즐거운 대화 
감사	 조건부 (일이 잘 풀릴 때만) 	돋보기로 숨겨진 별을 찾듯 모든 상황에서 발견 
결과	억압과 무거운 돌덩이 	자연스러운 라이프스타일 

관계를 통과하는 순간, 무거운 율법은 즐거운 일상으로 변습니다.

신앙의 직분에는 졸업이 있지만, 영적 호흡에는 수료가 없습니다



새가족 과정

서리집사

안수집사/권사

장로

STOP

수료가 있는 것들: 세상의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영원한 ing: 그러나 기쁨, 기도, 감사는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영원토록 지속되어야 할 우리의 멈출 수 없는 호흡입니다.

영적 방학의 시작, 배낭에 무엇을 챙기시겠습니까?



여름 휴가 체크리스트

- ☒ 재충전을 위한 휴식
- ☒ 가족들과의 즐거운 시간
- ☒ 결코 나태해질 수 없는
영적 정체성 (기쁨, 기도, 감사)

몸은 휴식을 취해도, 우리의 영적 호흡은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보석을 여행 배낭에 꼭 챙겨가세요!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는 진짜 '쉼'

오해

기도는 꼭 아침 일찍, 침대 머리맡이나
교회 예배당에서만 해야 한다?
(시간과 장소의 속박)

진실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다면,
해변의 해먹 위에서도, 운전석에서도, 산책길에서도
가장 즐거운 2시간짜리 대화(기도)가 이어집니다!

관계가 통하면 공간의 제약은 사라집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영적 정체성



어두운 세상 (Darkness)

- 불평, 근심, 단절, 율법주의, 치열한 비즈니스 경쟁.

CBMC의 손전등 (Light)

- 조건 없는 기쁨, 끊임없는 기도, 범사에 감사.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이 멈추지 않는 세 가지 보석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삶으로 증명해 냅시다.

혼자가 아닌 우리, 함께 걷는 CBMC 공동체

비즈니스의 위기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맙시다!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의 핫라인을 열어둬요.

함께 기뻐하며 여름 방학을
건강하게 보냅시다.

내 힘과 의지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바른 관계를 맺고
동역자들과 맞잡은 손을 통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를 향한 따뜻한 파송의 축복



이번 하기 휴가(방학) 동안 몸과 마음은 꼭 쉬며
나른해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름이니깐요!
하지만 어디에 계시든지 기쁨, 감사, 기도의 그리스도인 정체성만큼은
아름답게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멈추지 않을 우리의 고백

주님, 무거운 율법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영원까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아름다운 숙제를 기꺼이 감당하는
CBMC 회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